

## 2017학년도 제 3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 회의일시 : 2017년 1월 6일(금) 16:00~17:30
- 회의장소 : 본관 2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정현식 (위원장)  
                  윤권석 (기획예산팀장)  
                  이도행 (학교법인 법무감사팀 공인회계사)  
                  김천일 (학생회 비대위 위원장)  
                  정진성 (학생회 비대위 부위원장)  
                  김종혁 (대학원 총학생회장)  
                  김창배 (외부전문가위원)
- 불참위원 : 양미경 (학생문화처장)  
                  이원석 (주간MBA 원우회장)
- 배    석 : 김남진(간사)

### ■ 위원 발언 및 질의 응답

김창배(외부위원)

건축기금 인출과 적립 금액의 차이가 나는데 무엇인지.

정현식(위원장)

차년도에 건축기금으로 들어올 돈이 있고, 2016년에 들어왔던 기금 중 2017년에 공사 잔금으로 지출될 부분이 있다는 뜻임.

김창배(외부위원)

장학기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윤권석(기획예산팀장)

장학 기부금 중 일정 금액 조성을 목표로 기부하는 경우가 있음. 이 경우 당해연도 기부금수입으로 계상되지만, 기부 목적이 충족될 때 까지는 기금이 적립됨. 이후 목표금액에 달성했을 때 장학금으로 지출되는 구조임.

정진성(학생회 비대위 부위원장)

임의건축기금 인출 20억은 건설가계정으로 지출되는데, 추가 연구건축기금 20억 적립은 무엇인지.

윤권석(기획예산팀장)

경제관 건축비 용도 기부금이 건축기금으로 먼저 적립되고, 건물 건축시 지출된 비용은 완공 이전까지는 건설가계정으로 계상됨. 이후 건물이 완성되면 자산항목인 건물로 전환됨.

**김창배(외부위원)**

기금이 사용 양상에 따라 수입과 지출이 변화가 있을 수 있음. 2016년과 2017년 수입과 지출금액의 차이는 기부금이라고 봐도 되는지.

**정현식(위원장)**

기부금 뿐 아니라 등록금 등을 고려해야 함.

**윤권석(기획예산팀장)**

국고 사업도 고려해야 함. 현재 시점 예산은 등록금이나 기타 비등록금 수입 등 실질적인 수입과 지출을 중심으로 돼있음.

**정현식(위원장)**

본부가 관리하는 기금만 있다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만, 각 대학원 발전기금 등 단위별 기금은 연중 추정 편성으로 이루어 지는 경우가 많아 예측하기 어려움. 기부금이 적게 들어오면 그만큼 지출도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구조임. 그런 면에서 기금적립과 기금지출은 실제 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님을 알아줬으면 함.

**정진성(학생회 비대위 부위원장)**

2016년 본예산과 2017년 가예산을 비교해서 등록금을 심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실제로 집행된 내역을 봐야 한다고 생각함. 실제로 2016년 가결산을 보면 인상요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윤권석(기획예산팀장)**

2016회계연도 실제 결산결과는 4월쯤에 나옴. 지금 현재 모든 것을 지출을 멈춘다고 하면 가능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불가능함. 모든 부서의 남은 계획까지 모두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 회계 말에 집행될 예산이 있을 수도 있음. 멸절된 보도블록을 교체하듯 낭비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 통제를 하고 있지만,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같이 연말에 필요한 행사를 위해 아직 쓰지 않은 예산이 있음.

**정진성(학생회 비대위 부위원장)**

가결산에서도 큰 행사들은 반영이 돼 있을거라 생각함. 그런면에서 인상요인이 없다고 판단됨. 작년 예산 적자를 35억정도로 예상했으나, 올해 실제 결과는 적자폭이 훨씬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본예산 기준으로만 등록금을 심의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봄.

**정현식(위원장)**

예산과 실제 결산의 차이가 있는 것이 맞음. 실제 결산을 보고 판단하면 좋지만 그게 불가능하므로, 현실적으로 최대한 합리적으로 추정을 한 가결산을 제공하는 것임. 어떤 수지상황이 균형예산인지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수지차액이 0인게 균형은 아님.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감가상각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 충당금을 적립을 해야 균형이라고 보는 것임. 지금 상황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운영수지라도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관점임.

**윤권석(기획예산팀장)**

감가상각비와 부채상환액이 충당은 돼야 사실상 현상유지를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됨. 가장 심각한 문제

는 우수한 교수님들이 이탈한다는 것임. 우수한 교원을 확보할 수 있을 만큼은 돼야 학교가 현상유지가 된다고 보는데, 어떤 면에서는 미래를 희생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임.

#### 정현식(위원장)

외부적인 요인 없이 순수하게 등록금을 어떻게 책정하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생각할 때, 학생입장에서는 학교가 낭비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는 것을 감시하는게 좋을 것이라 생각함. 학교의 발전은 모금을 통해 이룬다고 하더라도, 현상유지는 정상적인 것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봄. 그러기 위해 얼마나 필요한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그러한 면에서 0.9% 인상을 제시한 것임.

#### 정진성(학생회 비대위 부위원장)

감가상각 같은 것을 고려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님. 부분적으로 자료상 숫자의 차이가 나는 상황이고, 감가상각비는 임의로 책정할 수 있다고 알고 있음.

#### 이도행(법인추천위원)

감가상각은 상각 방법과 내용연수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정해져 있음. 영리기업은 감가상각을 매출을 통해 충당할 수 있어야 하나, 학교는 미래에 기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전제가 기본 컨셉임. 이전까지는 감가상각비를 운영계산서에 계상하지 않도록 되어있다가, 2010년부터 학교 회계에 있어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도록 규정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음. 이는 불확실한 미래 기금보다는 현재 가능한 재원이 있다면 학교도 최소한의 개보수 비용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됨.

#### 정진성(학생회 비대위 부위원장)

적립할 수 있다는 것이지, 적립해야만 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 비율도 의무적으로 부과된 것이 아니라 최대 10%안에서 설정할 수 있는 것임. 이를 악용하는 학교도 있다는 점에서 임의적이라고 말씀드린 것.

#### 김중혁(대학원 총학생회장)

2017년 가예산에서 건축물 관리비, 보험료가 두배로 증가함.

#### 정현식(위원장)

김대건관에 한국어교육원 일부가 이전하는 리모델링 공사비가 반영됨. 보험료도 외국인 상해보험이 의무화됨에 따라 인해 증가함.

#### 김중혁(대학원 총학생회장)

이월자금이 많음.

#### 정현식(위원장)

이월자금은 대부분 국고사업비로 이루어짐. 학교에서 이월되는 것은 대부분 장학금임.

#### 김중혁(대학원 총학생회장)

2017년 가예산에는 이월자금이 없음.

**윤권석(기획예산팀장)**

이월예산은 각 부서에서 신청하는데, 회계연도 말까지 사용할 금액을 예측해야 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 단계에서 최대한 마지막에 반영할 수 밖에 없음. 차년도 전기이월자금 수입으로 반영되는 것으로 수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

**정진성(학생회 비대위 부위원장)**

국고보조금 수입이 적게 잡혔는데, 코어사업이 반영안된 것을 감안해도 지나치게 많이 줄어든 것 같음.

**정현식(위원장)**

코어사업이 미반영 돼있고, 특성화사업 중간평가 결과가 반영되었음. 매년 재평가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본예산이 반영되어있지 않고 차후에 선정되면 추경예산으로 반영됨.

**김천일(학생회 비대위원장)**

2015년, 2016년 등 최근 들어 예산에서 수입이 훨씬 적게 잡히고 있음.

**정현식(위원장)**

예를 들면 고교교육정상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연중에 선정이 돼서 추경예산으로 반영됐기 때문임. 신청 예정인 국고지원 사업은 본예산에 반영할 수 없음. 학생들 입장에서는 수입을 과도하게 축소한다고 보여질 여지가 있으나, 국고보조금 수입은 모두 지출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됨.

**김종혁(대학원 총학생회장)**

기타학생경비가 2017년 가예산에 많이 증가하는데, 어떤 부분인지. 학생지원비는 과도하게 감소되었음.

**김남진(간사)**

과거에는 한국어교육원생의 수업료에 있어 학비감면 후 실제 납부금액을 수입으로 계상하였는데, 전체 수업료는 수입으로 잡고 학비감면된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규정이 바뀜. 학위과정생이라면 장학금으로 처리 할 것이지만, 비학위과정생이므로 장학금이 아닌 기타학생경비로 계상됨. 학생지원비는 코어사업이 미반영된 것으로, 차후 코어사업이 반영될 경우 학생지원비도 늘어날 예정임.

**김창배(외부위원)**

비용은 대부분 일정한 양상으로 지출됨. 그런데 2016년에 홍보비와 행사비가 급증하였고, 이는 남양주 캠퍼스 조성 관련한 것으로 보임. 일회성 비용일 수 있는데 2017년에도 2016년과 비슷한 규모로 책정하는 것이 옳을지. 홍보비가 지나치게 많이 책정된 것이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정현식(위원장)**

총장 취임 첫해라서, 홍보동영상 및 브로셔 제작등이 반영되었음.

**정진성(학생회 비대위 부위원장)**

예산을 부서별로 자율책정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예산을 보면서 등록금심의를 한다고 해도 실제로 부서별로 쓰는게 다르다고 하면 심의를 할 수 있을지 의문임.

**정현식(위원장)**

이건 학생들이랑 똑같은 입장인데, 낭비요인에 대해 학생들이 수시로 감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함. 각 학과나 대학원에서 하는 행사에 대해 충분히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함. 일부 대학은 각 단위의 재량을 인정하지 않고 본부에서 예산 편성까지 통제하는 경우가 있음. 우리학교의 문화는 그렇지 않음. 그래서 큰 부분 위주로 보았으면 함.

**정진성(학생회 비대위 부위원장)**

어떤 학과는 학생지원비가 줄었을 수도 있고, 어떤 학과는 늘어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학생경비가 증가했다는 것만으로 심의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함.

**정현식(위원장)**

학생회 조직이라는게 그래서 필요한 것인데, 학부 행정팀 등에 건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함. 지금 시점에서만 논의할 것이 아니라 차후에도 총학생회 조직을 통해서 학교에 전달할 수 있다고 봄.

**김천일(학생회 비대위원장)**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난방비를 절감하고 있다고 하는데, 올해 가결산을 보면 예산에 비해 많이 적게 사용하였음. 내년 예산이 줄었는데 실제 난방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될지 물리적인 것을 문의하고 싶음.

**정현식(위원장)**

도시가스 요금이 인하된 적이 있어서 실제로는 절약이 된 결과가 나왔음. 향후에는 가늠하기 어려움. 전기로 냉난방을 하는 곳이 있어서 전기료와 난방료를 같이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김천일(학생회 비대위원장)**

냉난방비가 다소 줄어들지만, 실질적으로 올해와 같은 난방 수준을 기대할 수 있을지.

**정현식(위원장)**

빈 강의실에 에어컨을 켜다든지 하는 불필요한 냉난방을 절감하며 운영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임.

**김천일(학생회 비대위원장)**

올해 가결산에 비해 내년 홍보 예산이 지나치게 많은 것이 아닌가. 줄여도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정현식(위원장)**

홍보비 내역을 검토해보겠음.

**김창배(외부위원)**

새로운 총장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반영 안돼있는데, 차후에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다면 어떻게 하는지.

**정현식(위원장)**

모금을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재원 마련 후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진행할 것임.

**정진성(학생회 비대위 부위원장)**

임의기타기금이 94억이 잡혀있는데, 전년도에 비해 많은 것으로 보임.

**정현식(위원장)**

확인해 보겠음.

**김중혁(대학원 총학생회장)**

대학원 등록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되었음. 타대학의 경우 논문심사비를 교비에 포함시켜서 교육의 일환으로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음. 만약 등록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대학원이 더 혜택을 많이 받거나 할 것으로 기대되지 않음. 논문심사비라도 교비로 전환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생각함.

**정현식(위원장)**

한번 고려해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함. 논문심사비는 대학마다 양상이 다름. 검토해보겠음.

**정진성(학생회 비대위 부위원장)**

예를 들어 특정학과에 필요한 필수 저널이 있는데, 산학협력단에서 일부 지원해주고 있지만 산학협력단에서 전출되면 논문 구독 지출의 변동이 확인하기 어렵지 않을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음. 전체적으로 논문구독료는 교비회계 안에서 처리가 됐으면 좋겠음.

**정현식(위원장)**

전부 교비로 충당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산학협력단의 연구지원 분야에도 필요한 부분이 있음. 학생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DB를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주시길 바람.

**정진성(학생회 비대위 부위원장)**

논문 구독이 가급적이면 교비로 이루어져서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음.

**정현식(위원장)**

교비가 충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그렇게 하겠음.

**김천일(학생회 비대위원장)**

대부분 대학들이 등록금 동결 기조인 것으로 알고 있음. 국고사업에 있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윤권석(기획예산팀장)**

아직까지 정책적인 발표는 없었으나, 향후 내려오는 정책에 따라서 고려해야 할 부분임.

**김천일(학생회 비대위원장)**

특성화사업이나 학부교육선도사업에도 평가기준이 있어서 우려가 됨.

**정현식(위원장)**

우리 학교에 있어서 국고 사업의 중요도가 크기 때문에 당연히 감안 해야함.

**정진성(학생회 비대위 부위원장)**

학교가 어렵다고 하지만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도 큼. 등록금 인상안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김창배(외부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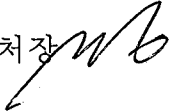
타 대학에 비해 기금이 적고 향후에 언제 상황이 개선될지 모르는 안타까운 상황임. 동문과 재단이 서로 협력적인 관계를 이루자고 누군가 얘기를 해야 함. 동문들도 기부할 의지가 있지만, 재단이 방만한 자세를 계속 취하면 기부를 할 수 없음. 동문들이 장학금을 많이 기부하는 학교가 좋은 학교인데, 새로 오시는 총장님이 서로 협조하는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음.

**3. 차기 회의일정 결정**


- 제4차 등록금심의위원회는 1월 12일(목)에 진행하기로 결정함

2017. 1.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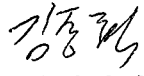
위의 사실을 확인함

위원장 : 정현식 기획처장 

(교직원 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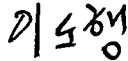
윤권석   
기획예산팀장


(학생위원)


김종혁   
대학원총학생회장

(외부전문가)

김창배   
파투아 부회장

이도행   
학교법인 법무감사팀

김천일   
학생회 비대위 위원장

정진성   
학생회 비대위 부위원장